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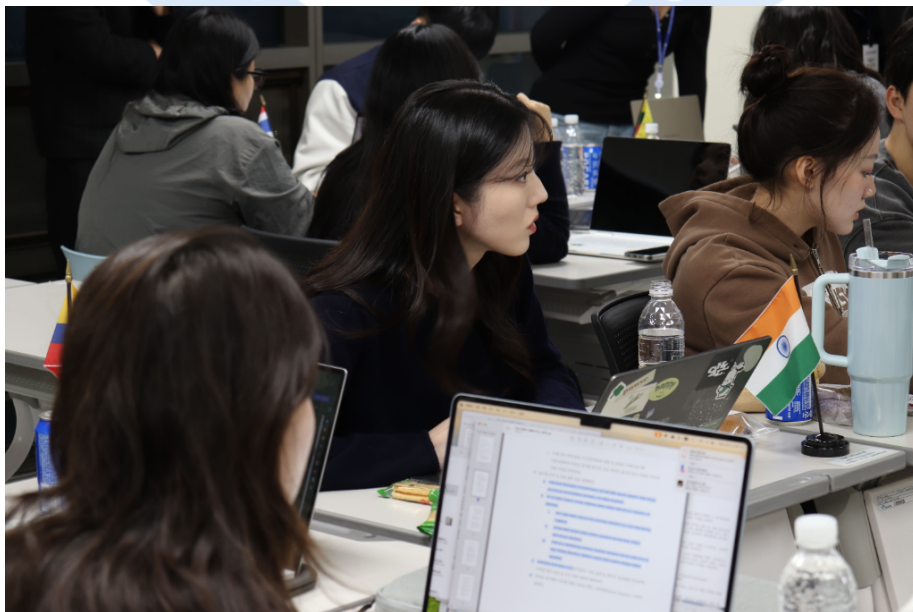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1. 3. (월요일)

**HLMUN 3차 비공식 회의,
결의안 조율 통해 공식총회 준비 박차
- 공식총회 앞두고 협의체별 세부 결의안 조율 -**

제3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 3차 비공식 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7시 국제관 14510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차에서 결성된 네 개 협의체가 각자의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협의체는 초안의 논리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항을 검토하며, 불법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결의안 제시를 위해 회의중인 A-4 협의체 (사진=hlmun press)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으로 구성된 A-1협의체는 국가 주권을 존중하면서 안보 중심의 합성마약 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협의체는 국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실험실 해체를 위한 국제 기술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또 각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생산국의 개발 과제와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로 구성된 A-2협의체는 단속 중심의 정책을 넘어 사회복지와 지역 인프라를 통한 회복 중심 접근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각국이 협력해 항만과 공항, 우편 등 주요 경로에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불법 자금 추적과 회수 체계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마약 피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마약 사용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생산지 농민을 대상으로 한 합법 작물 재배 지원 및 공정무역 확대 등 사회경제적 회복 방안도 논의됐다.

미얀마와 태국의 A-3협의체는 ‘단속이 아닌 전환, 처벌이 아닌 회복’을 기조로 한 결의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마약 생산지로 지목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실태를 지적하며, 생산지 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골든 트라이앵글 대체 개발 펀드(GT-ADF) 설립, 지역 농민 협동조합 지원, 여성과 청년층 대상 소액금융 확대, 공정무역 인증을 통한 안정적 판로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3협의체는 “마약 문제 해결은 경제적 취약성과 보건 위기를 함께 풀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재정적 참여와 협력을 촉구했다.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 콜롬비아로 구성된 A-4협의체는 기술과 인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추적 체계 구축을 결의안의 중심에 두었다. 협의체는 불법 마약의 생산·유통·소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구체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국제 공동 관리 기구(GPTM) 설립을 제안했다. AI 기반 위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유출을 예측·차단하고, 농촌 지역의 자발적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

농촌 마약 대체 개발 연합(IRDAC) 신설을 함께 제시했다. A-4협의체는 “마약 문제는 단순한 치안이 아니라 보건과 개발, 그리고 인권의 문제”라며 “비폭력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열린 4차 비공식 회의에서는 각 결의안의 세부 조항이 수정·보완되었으며, 오는 11월 5일 열릴 공식총회를 통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인다.

| | | | |
|---|----|------------|----------|
| 담당 부서 제3회 HLMUN PRESS팀 | 팀장 | 총괄 | 안태현 |
| | 팀원 | 기사 작성 및 번역 | 맹민주, 김지민 |
|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39th.baekya@naver.com | | | |
|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 | | |

